

가장 쉬운 스마트팩토리 솔루션

N FACTORY NOW

—
여러분은 ‘지금’ 공장 상태를 정확히 아십니까?

공장에서 발생한 문제, **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?**



- 24시간 365일 공장에 있을 수 없다면, 공장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
- 문제가 감지되기 전까지, 감지 후 보고하는 동안에도 잘못된 공정은 흘러갑니다.
- 모바일, PC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데이터는 알고 있습니다. **지금 어디가 문제인지**



- 눈에 보이는 CCTV부터, 보이지 않는 센서 데이터까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.
- 데이터가 보내는 신호, 바로 지금 볼 수 있어야 합니다.

언제, 어디서든 데이터를 읽고 **지금 결정해야 합니다.**



- 공장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는 시대 당신의 현재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
- 구성원 모두가 똑같은 “NOW” 데이터를 공유할 때,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.

“지금, 실시간”으로 공장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,
FACTORY NOW의 출발점입니다.

FACTORY NOW

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입니다.



영상, 센서, SCADA 등 통합 모니터링

언제 어디서든 이상징후 실시간 알림



신속 정확한 현상 파악 및 공유

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원가절감 극대화



포스코, 현대자동차, 삼성전자,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마트팩토리 노하우를 축적한 엔쓰리엔이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**FACTORY NOW**로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합니다.

실시간 설비 운전상태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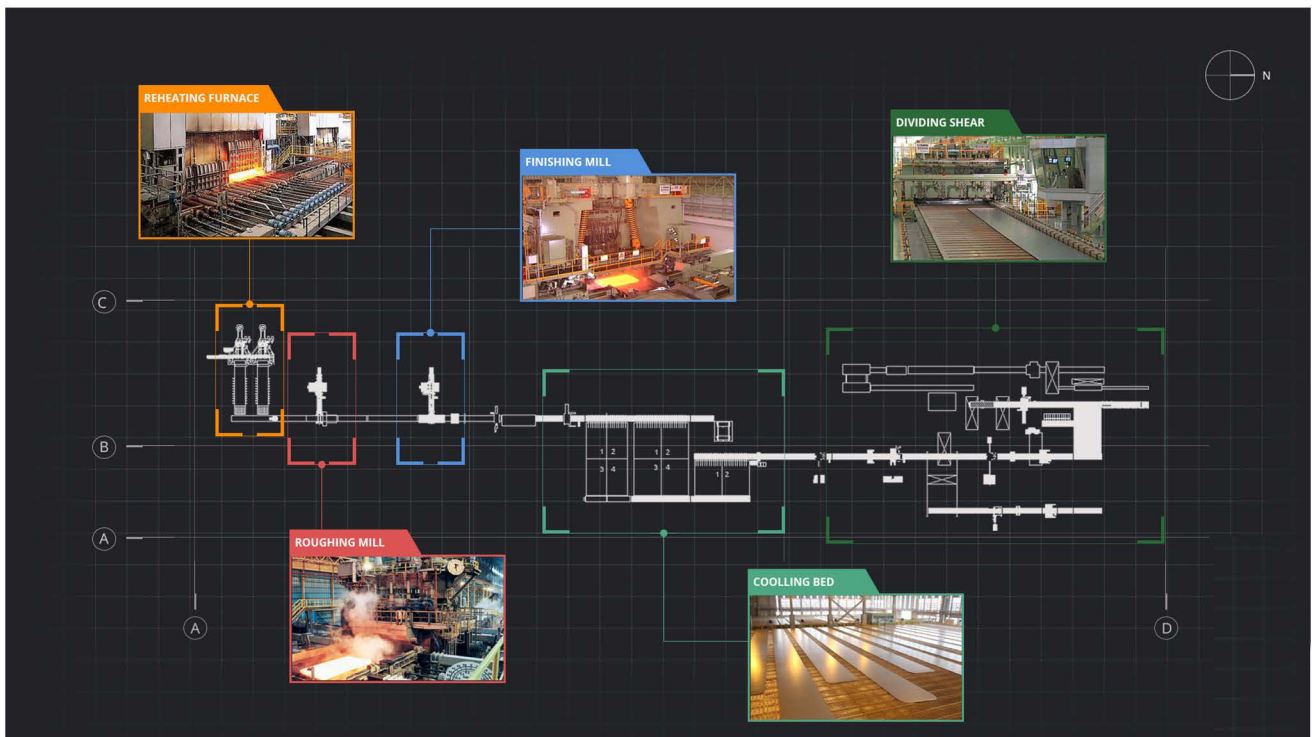
FACILITY NOW

- 생산설비 이상 발생시 실시간 알림과 동시에 문제 파악
- 설비수명은 늘리고, 설비 관리비용 및 생산 원가 절감

설비상태 이상 징후
실시간 파악

Top에서 실무자까지
동일 화면 공유

신속한 원인파악 및
조치시간 최소화



Real-time Facility Monitoring



WIZEYE

전압

전류

전력량

온도

SCADA

PLC

HMI

무게

길이

카운트

센서

바코드

공조기

보일러

실시간 품질상태 모니터링

QUALITY NOW

- 공정별 실시간 품질 지표 현황 파악
- 생산 품질 향상으로 품질관리 비용 절감

생산 특성별 주요 품질
지표 설정

공정 중 품질 검사
동시 진행

대량 불량 가능성
조기 차단



Real-time Quality Monitoring



WIZEYE

무게

길이

색깔

두께

온도

측정센서

지능형 영상 감지

레이저 장비

열화상 카메라

실시간 생산환경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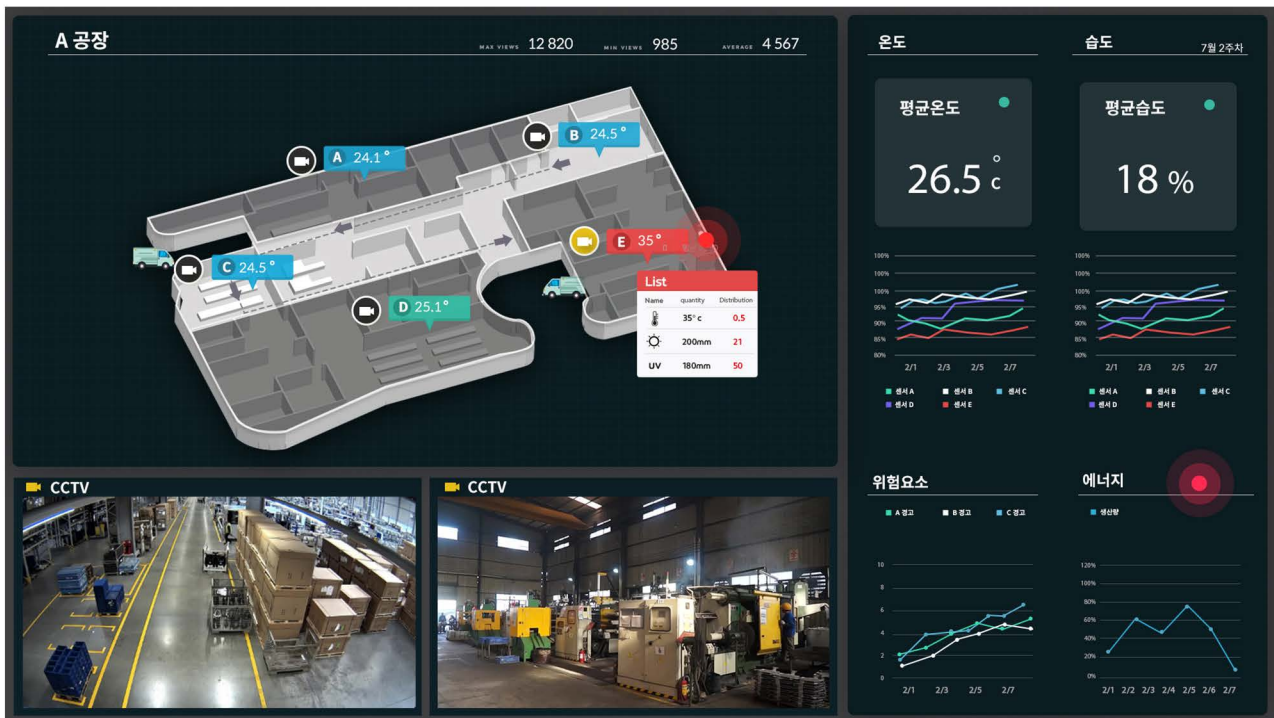
ENVIRONMENT NOW

- 보고과정이 불필요한 실시간 환경변화 알림
- 환경변화에 따른 돌발변수 최소화로 공정사고 예방

환경값 임계치 설정
및 실시간 알림

공장 내외부
환경변화 즉각인지

신속한 환경변화
대응으로 공정유지



Real-time Environment Monitoring



WIZEYE

온도

습도

차압

먼지

물체

기상정보

보일러

가스

공조기

쉽게 구축해야 “SMART” 할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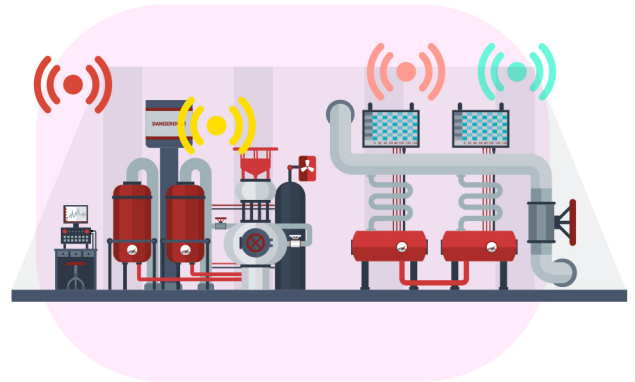


필요한 장비, 기능,
화면 구성안만 선택하세요.

※ 화면 구성은 추후 에디터를 통해 변경 가능

스마트팩토리 전환,
최대 2개월이면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※ 사업장 특수성, 추가기능 요구시 변동 가능



구축부터 운영까지
전문인력이 책임지고 관리합니다.

구축부터 사용까지 쉽고 빠르게

가장 쉬운 스마트팩토리 지원, 팩토리나우에서 시작하세요

www.factorynow.ai



1

홈페이지에 접속해
귀사에 적합한 솔루션을 선택합니다



2

지역별, 산업별로
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합니다.



3

미리 만들어진 사업계획서를
다운로드하십시오.

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팩토리 구축 신청서 작성 시간도

“SMART”하게 절약하십시오

N3N은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가진 회사입니다. 실시간으로 카메라, 센서, SCADA, 로그 등 비구조화된 IOT 데이터를 수집해서 실제 맵 기반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산업분야 모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대규모 영상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특허 기반의 알고리즘(POD, PIXEL ON DEMAND)은 이미 삼성전자, 현대자동차, 포스코 등 세계 각지 공장에 적용되어 있습니다. 이들 고객사는 세계 각지에서 수집되는 수천개의 영상데이터를 본사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, 스마트 팩토리는 물론, 미국, 인도, 한국 등 스마트시티 솔루션으로 채택되고 있으며, 일본에선 자율주행차 분야에도 적용되었습니다.

데이터를 자동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의 특허(DTG, DATA TOPOLOGY GENERATOR)는 POD와 더불어 그 기술력과 가치를 CISCO로부터 인정받아 2014년 투자유치는 물론, CISCO IT자원관리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. DTG는 현재 스마트 팩토리는 물론, 금융 그룹, 5G 이동통신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중입니다.